

# “내 새끼 못찾으면 어쩌나” 어버이날의 슬픔

**세월호 참사**

대부분 떠난 팽목항 적막감만 “수색 중단할까” 가족들 불안 자원봉사자들 뒷바라지 계속

어버이날인 8일 진도 팽목항에는 유난히 바람이 세웠다. 기다리는 아빠·엄마, 동생, 남편을 만나려는 듯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텐트를 거세게 두드려댔다. 그 때마다 끼니도 거르고 텐트 안에 엎드려 TV 뉴스 속 수색·구조 상황을 들여다보던 가족들은 한 번씩 바다를 향해 얼굴을 내밀고 텐트를 손봤다. 그나마 8개 동 텐트에 딱 들어왔던 가족들 대부분은 진도를 떠났고 이제 한, 두 가족만 띄엄 띄엄 앉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아이만 못 찾으면 어쩌나’라는 초조함, 숨진 잠수사에 대한 미안함이 더해진 무게는 고통 속에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사고 초기 500명을 웃도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텐트 8동에는 40~50명 남은 가족들이 머물고 있지만 적막할 정도로 넓다. 가족들의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물 때까지 단 1구의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 ‘오늘은 어버이 날, 돌아와 주겠지’, ‘해마다 어버이 날이면 카네이션을 내밀고 수습에 웃던 아들이니까, 오늘은 거짓말처럼 돌아오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숨기고 있던 가족들의 얼굴에는 날이 저물면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기에 어두운 밤이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내 새끼만 안 돌아와 혼자 남는 것 아닐까’, ‘더이상 수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까’ 등의 불안함까지 가족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언제 갑자기 수색이 중단되고, 배를 인양한다 말이 나올까봐 걱정돼 죽겠어요. 이제 모두 떠나고 없잖아요, 실종자 가족



**카네이션과 염원 쪽지**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진도 팽목항을 찾은 전북지역 시민들이 실종자 가족 대책반 맞은편 천막에 ‘카네이션’과 함께 무사귀환 등을 염원한 쪽지를 붙인 플라스틱 판을 놓고 있다. ‘겨레는 하나’라는 단어가 주축이 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뜻을 모은 시민 40여명은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지역의 어버이들도 함께 아파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도, 자원봉사자 분들도...” “모쪼록 잠수사 분들이 식사도 잘하시고, 다치지 않았으면,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다 찾아내 돌아오게 해 주셨으면... 옥심일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바람에도 현실 대부분을 수색한 현재 여전히 35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자원봉사자도 초기에 비해 대폭 줄었다. 하지만, 남은 자원봉사자들은 마지막 실종

자 한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길 때까지 팽목항과 실내 체육관을 떠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밤차를 끌고 팽목항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김수옥(여·56)씨는 “식사하던 가족들 대부분이 시신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침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을 찾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직접 시신을 찾아 나설 순 없지만 마지막 한 명이 가족을 찾아

집으로 가실 때까지 팽목항에 남아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의 수는 침몰 당일인 ▲지난달 16일 393명이었던 것이 ▲17일 1254명으로 대폭 늘었다가 ▲20일 235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7일 650명 ▲어버이날인 8일 602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 청해진해운 대표 체포...과적 목인 등 수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붙잡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이 김 대표의 목인고 승인하에 이뤄졌다는 게 수사본부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또 침몰 당시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김경 합동수사본부는 8일 김 대표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체포, 조사중이다. 김 대표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수시로 과적 운항하며 초과 수익을 거둔 것은 김 대표의 목인고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복원성 문책을 무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목포해경으로 압송된 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장 등 승무원 8명과 함께 탈출한 필리핀 가수 부부를 상대로 조타실 승무원 행적을 파악중이다. 이들은 수사본부에 조타실 승무원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조타실 뒤 숙소에 머무르다가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세월호 수리를 의뢰하며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추가, 적용했다. 안씨는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시신 유실 대비 수색범위 80km까지 확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시신 유실과 유류품 수거 등에 대비한 수색 범위가 80km까지 늘어났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해상수색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은 80km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애초 사고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범위까지 그물,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색과 항공수색을 벌여왔다. 사고 해역에서 남북 20km, 동서 16km까지 펼쳐진 총 284km의 구역 중 지난 1일 84km를 ‘사이드 스캔 소나’를 장착한 선박으로 해저영상탐사를 한 뒤 추가 탐사를 통해 총 187.4km까지 진행했으나 실종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진도=김형호·박현영기자 khh@

전날 진도와 해남 해안가에서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지만 해상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대책본부는 “아간 수색에 투하한 조영탄 일부가 불발탄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불발 조영탄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에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8가구에 2억 6천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4~5월 이동통신비, 희생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및 할부금 감면을 위한 절차도 이동통신 3사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도=김형호·박현영기자 khh@

## 또 뒤바뀐 숫자, 벌써 7번째...해경 총체적 부실

구조 2명 줄고 실종 2명 늘어 불신 감추려고 2주동안 ‘쉬쉬’

해양경찰청의 무능함과 불신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뿐 아니라 비판을 의식한 의도적 감추기와 실적 부풀리기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직원들의 기강 해이까지 맞물리면서 ‘총체적 부실 기관’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구조자 숫자를

174명에서 172명으로, 실종자 숫자를 33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다고 정정했다. 사고 발생 이후 기본 인적 현황이 바뀐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탑승객 중 구조자(174명)가 중복신고와 오인신고로 2명이 줄어든 반면, 명단에 없던 중국인 탑승객 2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실종자 숫자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인 탑승객은 이미 지난 21일과 23일 수습된 희생자들로, 사망자 수에 포함된 두 명이 갑자기 추가 실종자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해경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탑승객 2명이 확인됐음에도, 잦은 승선·실종자 인원 변동에 따른 불신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경의 부실한 조동 조치 및 ‘부풀려진’ 구조 현황도 고소란하 드러나 빈축을 샀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해경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10시23분 상황보고서의 경우 합선 33척(해경 25, 해군 8), 항공기 6대(해경 5, 해군 1)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방송과 동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현장에는 구조정 1척과 헬기 2대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 18개 부처에 16일 오전 9시30분에 보낸 첫 번째 상황보고서에는 이미 세월호가 침몰중인 상황에서도 ‘침몰 위험이 있다’는 안이한 상황 인식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부산해경 직원은 한국선급(KR)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가 대기 발령조치됐고 제주해경 간부는 골프·음주 자제령에도 골프를 치다 직위해제됐다. 앞서, 목포해경 간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취재진 질문에 “해경이 못한 게 뭐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김지울기자 dok2000@

## “물수된 염총 돌려달라” 70대 정식재판 청구 관심

○...수렵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 목적으로 염총을 들고 다니다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물수된 염총을 돌려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괏과에 관심. ○...광주지법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해 12월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변 수렵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렵 목적으로 총

기를 수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50만원) 및 염총 몰수 처분을 받은 뒤 염총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진행중이라는 것. ○...A씨는 8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에도 재판으로 다루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염총은 건강 유지 및 유해조수 포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요청.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피스텔 "매매"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13층, 53P(실평33P)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주거가능)  
매매가 1억 5500만원(시세/분양가 2억)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